130115 종단협 신년하례법회

법 어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안고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불자 대중과 국민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지혜와 가복(家福)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는 뱀이 묵은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이, 끊임없는 성찰과 수행으로 모든 번뇌와 삼독심을 벗어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덕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성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식자들은 지난 해를 온통 탁한 세상, 즉 거세개탁(擧世皆濁)이라는 말로 표현하여 불안한 사회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다움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물질만능의 폐해가 우리사회에 고통과 상처를 주는 현실을 반영하듯이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말은 힐링(healing) 즉, ‘치유’였습니다.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으며, 그것을 치유해 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종교인을 비롯한 사회의 여러 지도자들은 분열과 갈등에 휩싸인 사회에 동체대비를 역설하고, 대중과 소통하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한결같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불자여러분!
오늘날처럼 소통과 화합이 절실한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모두가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생관계라는 것을 바로 보고,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화합과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두 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고, 머릿속이 자기주장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욕심과 어리석은 집착을 비워낼 때 비로소 이웃이 보이고, 내 것을 나눌 때 행복의 길이 더 크게 열립니다. 비움과 나눔은 아름다운 동행이며 사회와 대중을 위한 치유의 보살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는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좌우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독선을 버리고 화합하여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공심의 정치와 이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국가의 부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동서고금을 통한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계사년 뱀의 해를 우리 민족이 새롭게 탈바꿈하는 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바른 안목(眼目)과 자비의 마음으로, 좌우상하 옳고 그름에 우선해서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사년 한 해, 우리 민족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년 1월 1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